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국민 앞 '공개 검증대' 오른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평가 첫 공개
내일부터 유튜브 생중계 진행
35개교 혁신성과 국민 검증대
지원금은 등급 따라 차등 조정
부진 대학은 지정 취소도 가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가 1000억원 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이 어떤 혁신 성과를 냈는지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지방대학을 선정해 5년간 단독 기준 1000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27개 모델(35개교)이 지

정돼 있다.

교육부는 사업 4년차를 맞아 대규모 재정지원에 걸맞은 성과 검증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평가를 공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

층 질의응답 전 과정을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평가는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나뉜다. 연차평가는 2024~2025년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지난해 혁신과제 추진 실적을 평가하

며, 동행평가는 2023년 지정된 10개 모델의 3년간 누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한다.

연차평가는 ▲27일(대한한의대·한동대·건양대·순천향대·한서대·경성대) ▲28일(원광대·경북대·동아대·대구가톨릭대·제주대·충남대·국립공주대) ▲29일(창원대·한국승강기대·인제대·국립목포대·조선대·조선간호대·전남대) 등이다.

동행평가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다. ▲6월 8일(국립경국대·포항공대) ▲6월 9일(울산대·부산대·부산교대) ▲6월 10일(경상국립대·국립순천대) ▲6월 11일(전북대·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6월 12일(강원대·한림대)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은 차등 조정된다. 연차평가는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이 더 커 20% 추가 지급 또는 50%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

성적이 낮은 대학에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하위인 D등급을 2차례 받거나 C등급 이하가 3차례 누적될 경우 보완 요구 없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과제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거나 통합모델로 선정된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도 취소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특성화지방대학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수치 실적만 보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혁신과제가 실제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가 대학 경쟁력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라며 “특히 2023년 지정대학의 동행평가는 혁신과제 이행도 뿐 아니라 대학 경쟁력 변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향후 실행계획까지 종합 평가해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엄격히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양주시, AI로 생활도로 사고 예방

국토부 AI 시티 공모사업 선정
생활·이면도로 충돌위험 사전 예측
보행자·차량·PM 사고 예방 기대

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한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AI 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도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고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해 기간별로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이면도로 충돌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시스템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술을 생활도로와 이면도로에 접목해 보행자와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사전 예측하고, 사각지대 위험 상황을 인지해 현장에서 경고 알람을 보내는 등 돌발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간선도로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를 생활권도로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며, “생활도로 속 사각지대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A등급 늘어난 고교 내신, 변별력 시험대

학교시험 평균·A등급 비율 상승
5등급제 전환에 변별력 약화 우려
대입서 원점수 평가 변수 부상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고교 학교시험 평균점수와 A등급 비율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인원이 늘어난 데다 대학이 내신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까지 볼 수 있어, 수험생들은 등급 관리와 점수 관리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4월 30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개교의 2025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집계됐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2024년 고1 2학기 평균 66.9점보다 3.5점 오른 수치다.

전 권역에 걸쳐 평균점수가 상승했고

성취도 90% 이상인 A등급 비율도 증가했다. 주요 5개 교과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2024년 2학기 21.6%보다 2.5%p(포인트) 높아졌다.

학교 내신과 전국 단위 시험 간 난도 차이도 확인됐다. 2026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국어 50.1점, 수학 41.3점, 영어 55.5점이었다. 같은 학생들이 전년 치른 고1 2학기 학교시험 평균과 비교하면 국어는 21.6점, 수학은 24.7점, 영어는 12.7점 차이가 났다. 학교시험이 수능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출제된 셈이다.

종로학원은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1등급 구간이 기존 9등급제의 4%에서 10%로 넓어지면서 변별력이 약해졌고, 학교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내신 등급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이수 상황, 과목별 원점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내신의 평균점수와 A등급 비율이 함께 오르면서 등급만으로 학생 간 차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원점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불확실한 데다 학교시험과 수능형 시험의 난도 차이도 커 학생 입장에서 내신과 수능 대비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26일 (화)
음력 : 4월 10일

수도권 날씨
21 ~ 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출 / 05:15 | 해질 / 19:43

백령도 17/21, 파주 19/24, 인천 21/25, 수원 21/24, 평택 20/24, 연천 19/24, 동두천 20/24, 가평 19/23, 서울 21/25, 양평 20/25, 용인 21/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이주민 유권자 투표 참여 돕는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홍보물 제작
13개 언어·그림으로 투표 정보 안내
이주민 지원기관·SNS 통해 배포

경기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주민은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가

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해, 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며,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국정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60일 휴전 연장 추진... 트럼프 “서두르지 말라”
▲헤즈볼라 수장 “美·이란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돼야”
/사진 뉴스스

▲美정보당국 “하메네이 은신 중...美·이란 협상 지연 원인”
▲美·이란 원칙적 합의 나왔지만... “유가 급락·운송 정상화까지 수개월”

▲“美관리, 이란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호르무즈 개방 ‘원칙적 합의’ 밝혀”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재개 논의